「-었었-」의 機能에 관한 一考

洪 誠 海*

目 次

Ⅰ. 머리말
Ⅱ. 基準時點의 問題
Ⅲ. '-었었-'에 대한 諸見解와 檢討
Ⅳ. '-었었-'의 形態素 分析
Ⅴ. '-었었-'의 機能
Ⅵ. 맺음말

Ⅰ. 머 리 말

時制와 時間과의 상호 연관에 대해서는 적잖은 모호성을 가지고 있긴 하나, 시간을 자연적인 흐름에 따르는 連續性과 一貫性을 띠는 것으로 보면, 시제는 이와 사뭇 다른 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時制란 言語 없이는 存在할 수 없는, 즉 만인이 공유하고 있는 시간의 경과 과정을 주로 動詞의 形態에 의하여 나타내려는 人間 本能의 一面인 것이다. 動作의 여러 狀態를 나타냄은 물론, 感情的인 色彩를 풍길 수 있어 時制에는 언제나 異質性과 多樣性이 있다. 여기에 H. Paul은 '時制는 動作의 相을 제외하고 생각할 때, 하나의 事件이 一定時에 일어나고 있다는 시간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 하여 시제 안에 보통 動作

* 同門, 安德中學校 敎師

의 相을 삽입시켜 설명하고 있다.[1]

그런데, 영어와는 다른 言語體系를 갖고 있는 국어의 경우에 있어서도 時制(tense)와 相(aspect)의 二元的 區分을 하지 않고 時制라는 한 범주에서만 서술하고 있다. 곧 自然時間 槪念을 바탕으로 하는 現在·過去·未來의 기본적 시제에, 각 時點에서의 특정한 意味的 樣相을 가리키는 개념인 完了·進行 등의 相 槪念을 포함시켜 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國語에서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시제를 나타내는 일정한 法則性을 발견할 수 없는데, 국어의 時制關係形態(시간 접미사 따위)들이 과거, 현재, 미래라는 각 개념에 1:1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매 時制에 대한 종래의 국어 문법에 큰 오류를 남기고 있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종래 문법에서 시제를 정하였던 基準時點이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談話時를 기준 시점으로 하는 絶對時制냐, 아니면 主文事件時를 기준 시점으로 하는 相對時制냐를 문장마다에서 분석하여 一貫할 수 없는 基準時點의 模糊性을 밝혀내므로써 시제를 인정하였던 종래의 견해와는 다른 주장을 펴고자 한다. 어떤 動作이나 事件의 時間的 樣態, 혹은 動作이나 事件 속에 時間的 幅이 어떻게 펼쳐져 있는가 하는 것을 보이는 相의 개념으로 진술하려는 것이다. 여기서는 특히 大過去나 過去完了로 인정되어 왔던 形態素 '-었었-'을 택하여 종래 여러 學者들의 見解와 그에 따르는 형태소 분석 방법을 검토해 나가면서 거기에 수반되는 問題點을 찾아 내고, 다음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보완할 수 있는 '-었었-'의 機能을 提示하고자 한다.[2]

Ⅱ. 基準時點의 問題

時制란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시간의 속성을 정확한 한 점으로 보고 그것이 言語에 反映된 것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相(aspect)은 시간의 속성을 지속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폭이 있는 구간으로 구성됐다고 보고 분석한 것

1) 영어의 전통 문법에서 相(aspect) 체계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Curme, Poutsma, Krusinga Zandvoot, Lony 등으로 알려져 있다.

2) 본고에서는 '-았었-'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異形態를 대표형 '-었었-'으로,'-았-' '-였-'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도 대표형 '-었-'으로 통합한다. 형태소 표시 | |는 이하 생략 표기한다.

이다. 따라서 時制나 相은 시간을 정확한 한 점으로도 보고 지속적인 것으로도 보는 人間의 兩面性이 自然言語에 反映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언어에 있어서 時制의 問題는 談話의 時間과 그 문장 안에서 기술된 事件, 行爲, 일의 狀態와 時間과를 관계지어 주는 것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문법 범주는 認識論理 위에서 設定되는 것이 아니라, 言語論理 위에서 設定되는 것이므로 文法體系를 떠나서는 어떠한 意味도 지니지 않는다. 그러므로 過去·現在·未來의 구분보다는 "現在 對 非現在", "過去 對 非過去", 또는 談話의 時點으로부터 "가까운 시간 對 먼 시간"으로 대립을 두어야 될 것이다.

(1) 지구는 태양의 둘레를 돈다.
(2) 숙제를 안 했으니, 이제 우리는 벌 받았다.
(3) 이런 사실로 보아 그들은 뭔가 해냈겠다.

종래 국어 문법에 적용되었던 Jespersen式 現在·過去·未來의 三分時는 위의 예문에서 오류임이 밝혀진다. 이제까지 '-φ-'는 現在를, '-았/었-'은 過去를, '-겠-'은 未來를 나타내는 形態素로 규정지어 왔으나, 예문 (1)의 경우 '-φ-'는 현재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과거에서 미래까지 이어질 事實性 또는 眞理性을 나타내기도 한다. 예문 (2)는 과거의 일이라기보다 時制를 무시한 確實性을 强調하는 것이며, (3)은 미래에 뭔가 해낼 것이라는 것보다 현재 사실에 대한 推測의 뜻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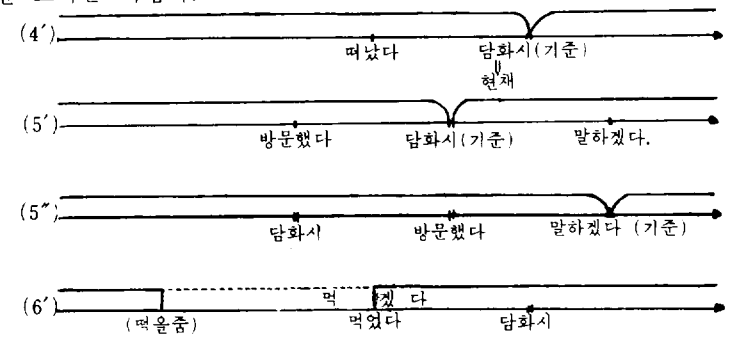
'-φ-', '-었-', '-겠-' 등을 각각 現在, 過去, 未來 등의 時制를 갖는 形態素라 여겨 온 것은, 單文인 경우는 談話時를 基準點으로 한 時制만을,[3] 複文인 경우는 그 時制形態素들이 終結叙述部에 쓰일 때 談話時를 現在로 잡고, 動作의 完了時點 혹은 豫定始作時點만을 문제로 삼은 데서 비롯된다.

(4) 그는 서울로 떠났다.
(5) 나는 그가 우리 집을 방문했다고 말하겠다.
(6) 그는 떡을 고맙게 먹겠다며 먹었다.

3) 최현배(1961), 「우리 말본」 서울 : 정음사. p.433참조.
김민수(1971), 「國語文法論」 일조각. p.278에서 '話者의 視點'이란 말로 話者가 말하고 있는 때란 뜻을 표현했다.

예문 (4)는 單文, (5),(6)은 複文인데 終結叙述部에 쓰인 '-겠-' '-었-'이 談話時와의 時間 前後上 未來, 過去에 있을 수 있는 일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5)의 경우 '방문했다'는 사실을 과거로만 처리할 수 없다. 내가 말하게 될 시간 전에 우리 집을 방문한 사실이 있으면 '방문했다'는 엄연한 過去이지만, 그가 적어도 우리 집을 방문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늦어져 방문한 상황은 아니나 꼭 방문하리라는 전제 하에서 방문했다고 (거짓) 말하겠다는 뜻이면 '방문했다'는 것은 談話時를 現在로 하여 未來요, '말하겠다'의 事件時로 보아 비로소 過去가 된다.

예문 (6)에서도 그 基準의 模糊性은 드러난다. 떡을 고맙게 생각하며 먹겠다는 뜻이니 적어도 고마움을 갖고 있을 效力, 즉 '먹겠다'의 범위는 떡을 준 時點에서부터 먹은 시간을 포함한 그 後의 시간에 대한다. 이런 경우 '먹겠다'는 '먹었다'의 事件時를 기준으로 한다면 未來로 限定시킬 수도 있지만, '지금 생각하니 그 떡을 먹을 당시 참으로 고맙게 여겼던 기억이 있다'는 식의 談話時 基準으로 할 때 '먹겠다'의 위치는 담화시 전에 설 수도 있어 未來를 나타낸다고만 보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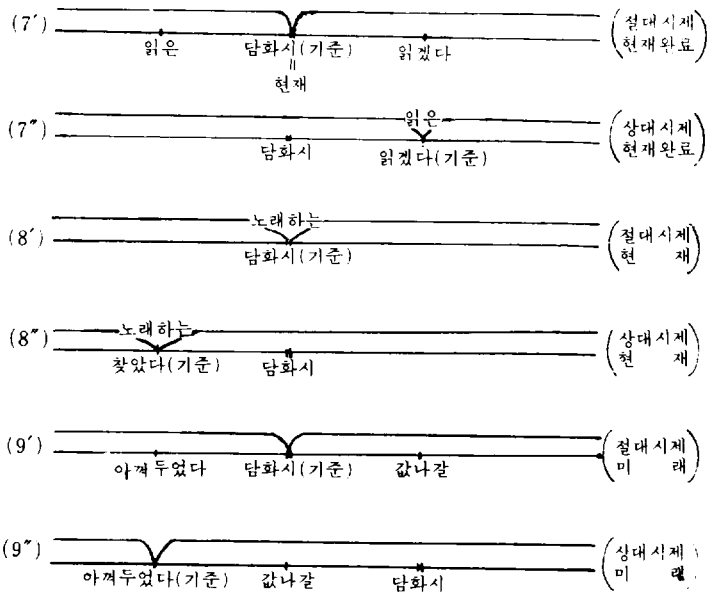
冠形詞形 語尾가 갖는 時制는 더욱 모호하다. 이른바 관형사형 어미 '-ㄴ/은,-는,-ㄹ'등은 관형사형을 형성하는 기능 외에 각각 過去, 現在, 未來의 時制를 보이는 形態素로 풀이하는 것이 종래의 일반적인 해석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경우에 어떤 時點을 基準點으로 해서 過去, 現在, 未來 등의 時稱이 구분되느냐 하는 점에서 一貫性을 갖고 있지 못하다.

(7) 읽은 책도 다시 읽겠다.

(8) 나는 노래하는 사람을 찾았다.

(9) 값나갈 물건을 아껴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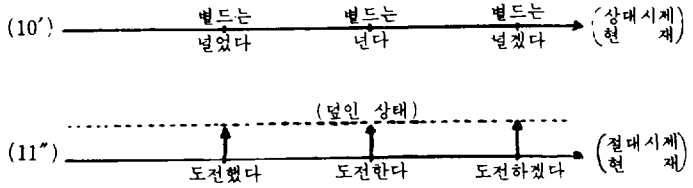
예문 (7)이 이미 읽은 책을 앞으로 다시 읽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면 談話時 基準으로, 아직 채 읽지 못한 책이지만 精讀하는 습관을 갖기 위해 책을 읽고 또 읽겠다는 뜻이면 主文事件時를 기준으로 해야만 '-ㄴ/은'은 過去 및 現在完了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때 前者를 絶對時制, 後者를 相對時制로 하는 過去 및 現在完了가 되는 것이다. (8)의 경우, 찾을 당시 노래 부르는 사람이면 主文事件時 現在로 相對時制요, 찾을 당시 노래는 안 불렀어도 노래 부르는 직업적인 가수를 지칭한다면 談話時 現在로 絶對時制인 셈이다. 이러한 基準點의 模糊性은 未來時制 形態素라 하는 冠形詞形 語尾 '-ㄹ'의 경우에도 나타나는데 예문 (9)의 경우에서 볼 수 있다. 당시 물건의 時勢로 보아 값나가는 물건이라면 主文事件時 未來요, 당시 값은 떨어졌지만 필경 후에 값이 나가리라 생각되는 물건을 아껴 두었다면 談話時 未來인 것이다.



다음에 제시하는 예문은 主文의 時制가 여러 가지로 변해도 항상 相對時制로 해석되거나 絶對時制로 해석되는 경우다.

(10) 나는 볕드는 곳에 빨래를 널었다(넌다, 널겠다)
(11) 만년설이 덮인 에베레스트산에 도전했다.(도전한다, 도전하겠다)

빨래를 너는 것이 談話 當時 과거냐 아니면 현재, 미래냐에 불구하고 항상 相對時制로 처리해야 '볕드는'은 主文事件時 現在가 된다. 또한 에베레스트산 꼭대기가 항상 만년설로 덮여 있다는 것은 眞理에 가까운 事實이니 내가 도전하는 것이 언제냐에 상관하지 않고 談話時 現在를 나타내는 絶對時制다.



動詞의 種類에 따라 時制의 基準이 달라져야 할 때도 있다.

(12) 김 교수가 가장 믿는 제자가 이 집에서 살았다.
(13) 김 교수가 가장 믿는 제자가 이 집에서 죽었다.

위의 문장에서는 主文 叙述語가 '살다'냐 '죽다'냐에 따라 絶對時制가 相對時制로 된다. 즉 (12)에서는 그 제자가 이 집에서 살다가 지금은 다른 집에서 살고 있다는 뜻이 될 수도 있으니[4] 지금도 김 교수가 그를 믿을 수 있는 것이요, 따라서 절대 시제가 될 수 있지만, (13)에서는 그 제자가 죽었으니 김 교수가 그를 믿고 싶어도 믿을 대상이 없게 되었으니 적어도 죽을 당시에 믿었다는 뜻이요, 따라서 상대 시제가 된다.

이상에서 종래 국어 문법에서 규정되어 온 '-는, -ㄴ/은, -ㄹ' 등의 冠形詞形 語尾나 이른바 時制 形態素 '-었-, -겠-, -었었-' 등이 그 기준 시점에 따라 時稱을 달리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때로는 言語外的인 要素, 때로는 動詞의 種類, 어느 때는 主文 叙述語의 時制, 그리고 또 意味解釋의 差異 등이 때에 따라 조건이 되고 있어 일정한 법칙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이것은 時制가 國語의 文法 範疇로서 設定되기 어렵다는 것을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4) '살았다'는 지금은 죽었다는 뜻과 단순히 居住했다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居住했다'는 뜻으로 쓴 것임.

Ⅲ. '-었었-'에 대한 諸見解와 檢討

'-었었-'으로 표현된 형태에 대하여 그 內容의 規定, 形態素의 分析, 使用範圍 등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크게 意見을 달리하고 있음을 본다. 국어의 시제를 인정하는 학자들의 주장, 또는 인정하지 않는 학자들의 주장이 분분하므로 本節에서는 이들의 代表的인 見解를 소개하면서 잠시 檢討해 보고자 한다.

1. 大過去

대과거를 어떤 과거(過去의 一定時)를 기준으로 해서 그 以前의 時間을 지칭하는 시제라 정의한다면 이 大過去를 규정하는 학자들의 표현에도 다소 差異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희승은 "퍽 오래 전에 행동하였을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말이니 이와 같이 그 전 어느 때에 행하였을 것"[5]이라 하고 이 숭녕도 "행동이 훨씬 전에 끝난 것"[6]이라 정의하였다.

(14) 영희는 방금 빨간 옷을 입었었다.

예문 (14)에 大過去時制로 지칭되는 形態素 '-었었-'이 쓰였으니 퍽이나 오래 전에 행동된 일어어야 하겠다. 그러나 '방금'이라는 時間과 아무 거리낌없이 어울리고 있어 '퍽 오래 전' 또는 '훨씬 전'이라는 時間槪念이 불분명하다.

이 익섭은 역시 대과거로 규정하면서 '-았/었-'에 다시 '-었(였)-'이 연결되어 대과거 시제를 나타낸다고 전제하고, "대과거 시제는 과거의 상태가 현재에 와서는 많이 달라졌을 때 쓰인다"[7]고 설명했다.

(15) a. 나는 학생 때 키가 참 작았었다.
b. 나는 학생 때도 키가 참 작았었다.

5) 이희승(1965), 「새 고등 문법」 일조각 p. 69.
6) 이숭녕(1968), 「문법」 을유문화사
7) 이익섭(1970), 「새 국어 문법」 서울대학교 재일교포 예비교육과정부, pp. 71.f.

(16) a. 어제가 내 생일이었다.
b. 어제가 내 생일이었었다.

위의 두 예문에서 (15.a)에서는 과거와 현재의 상태가 달라진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15.b)에서와 같이 助詞 '-도'를 추가했을 때는 過去와 現在가 완전히 同一한 狀態를 의미한다. 여기서는 물론 亦同의 뜻을 가진 助詞 '-도'가 붙었지만 '-었었-' 자체의 기능을 변화시킨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16)을 들면서 "동일한 일을 과거 시제로도 쓰고 대과거 시제로도 쓰는 일도 많다"고 하면서 回想의 意味를 부여하고 있지만 이것은 '-었-'과 '-었었-'의 交替可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意味傳達에 差異를 갖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극히 국한된 예이다.

2. 過去完了

'-었었-'을 과거 완료로 보는 것은 주 시경에서 비롯된다.

(17) 그 마당을 쓸엇엇다.

그는 위 例를 제시하였는데, 밑줄친 '쓸엇엇다'는 現代語로 '쓸었었다'에 해당하는 말이다. 주 시경은 먼저 그 문장에서 쓰인 '-엇엇-(-엇엇-)'을 지나간 시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규정지어 놓고, 어떤 사람이 마당을 쓸어 마당이 깨끗해진 상태로 있었는데 그것이 그 후의 시간에 다시 더럽혀져, 쓸어 깨끗해진 상태가 드러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먼저 쓰인 '-엇-'은 쓰는 행위가 다했음을 보이는 것이고, 뒤에 '-엇-'은 다시 그 상태가 없어짐을 보이는 것이라 설명했으니[8] 이상의 내용은 과거 완료로 보는 見解와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최현배는 '지난적 끝남(過去完了)'이라 하고 "지난적 끝남은 지난적에 움직임이 막 끝나서 그 결과가 그 때에 들어나아 있음을 보이는 때매김이니 지난 적

8) 周時經(1910), 「國語文法」 博文書館 p.100에 정의를 내린 것을 필자 나름대로 現代語로 풀이한 것임.

에 움직임을 마쳤기 때문에, 시방은 그 결과가 들어나아 있지 아니함이 예사이다. 지난적 끝남은 움직씨의 이적 끝남의 꼴(○○었다)에 지난적 때도움 줄기 '았'이나 '었'이나 또는 '였'을 더하여 만드니라"[9] 하였다.

(18) a. 내가 여기 그것을 두었었다.
b. 내가 여기 그것을 두었었는데 지금도 그냥 있어.

최 현배가 제시한 (18.a) 문장을 (18.b)로 만들어서 생각해 보면 '지난적에 막 끝나서 결과가 그 때는 드러나 있었는데 지금은 드러나 있지 않다'는 말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3. 完了의 完了

허 웅은 완료(또는 과거) 형태소의 複合으로 보고 完了가 더 먼 옛날에 이루어진 것이라[10] 하면서 다음을 제시하였다.

(19) 그 때는 나도 젊었었지.

이 例文에서 앞의 완료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며, 뒤의 완료는 또 어떻게 표현된 것인가?

또한 박 창해는 '완료의 완료(또는 大完了)'라 하고 "동작이나 기술함이 이미 완료되었음을 다시 거듭 확인하는 것"[11]이라 하였다.

(20) 정 선생이 여기에 지금 왔었다.

이 예문은 지금 와 있는 상태를 거듭 確認하는 뜻이라기보다는 와 있는 상태가 斷續되고 또 어떤 다른 상황이 있었음을 제시한다고 해야 타당할 것이다.

9) 최현배(1959), 「우리 말본」 정음사, p. 438.
10) 許雄(1969), 「표준 문법」 新丘文化社, p. 83.
11) 朴昌海(1964), 「한국어 구조론 연구」 -형태소론 및 형태소 배합론- 연세대학교 한국어 학당, p. 83.

4. 斷續相

남 기심의 斷續相은 지금까지 비교적 막연하게 이해해 온 '-었었-'의 機能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見解로서 "'-었었-'은 과거 완료나 대과거가 아니라 완료된 상태의 단속을 보이는 것으로 단속상으로 규정한다"[12]하고 다음과 같은 예를 보였다.

(21) a. 그는 부산에 갔다.
b. 그는 부산에 갔었다.

위의 예문 중 (21.b)는 갔다가 온 것으로 간 狀態의 持續이 아니요 斷續이라고 한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그가 부산에 간 일이 있는 점만 지적한 것이고,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話者가 상관하지 않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부산에 간 일과 현재와의 사이에 연결이 끊어져 있는 경우에도 '斷續'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단속'이란 표현만으로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

(22) a. 그는 그 때 부산에 갔다가 왔다.
b. 그는 그 때 부산에 갔었다가 왔다.

(22.a)와 (22.b)는 意味上 부산에 간 상태가 持續되지 않는 것으로 모두 斷續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남 기심이 주장하는 '-었-'과 '-었었-'의 기능이 불분명해진다. 여기 (22.b)에서 '-었었-'의 형태를 빌어 표현한 것은 단속의 의미를 내포하기도 하지만 그 기능을 넘어서 話者가 말하고자 하는 지나간 여느 特定 時間에 부산에 간 사실만은 확실하고 그것을 더욱 强調하려는 話者의 意圖로 설명해야 할 것이다.

12) 南基心(1972) "現代國語 時制에 關한 問題"「국어국문학」55~57 합병호. 국어국문학회 pp. 213~238.

5. 經驗·對照相

성 기철은 '-었었-'을 主體의 過去 經驗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叙法範疇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였다.[13] 그러나 '-었었-'을 과거의 경험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때 상당한 문제가 따른다. '-었었-'이 경험을 보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이 쓰인 문장의 主語가 一人稱이어야 하고 叙述語가 動作을 보이는 動詞, 예를 들면 '죽다, 살다, 보다' 같은 것들이어야 한다. 狀態를 보이는 말일 때는 經驗을 나타낸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었었-'이 경험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많은 制約이 있을 뿐만 아니라, '經驗'이란 용어의 意味도 不明確하다. 과거의 모든 일은 다 경험일 수 있기 때문이다.

(23) a. 나는 귀신을 보았었다.
b. 나는 귀신을 보았다.
(24) 나무가 부러졌었다.

예문 (23)의 두 문장 모두 "나는 귀신을 본 적이 있다"의 뜻으로 경험을 나타내고 있어 '-었-'과 '-었었-'의 차이, 일반적으로 過去의 事實과 經驗의 구별이 모호해진다. 그리고 그 經驗의 主體가 누구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나무가 부러졌었다" 하면 나무가 부러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뜻인가, 아니면 말하는 사람이 나무가 부러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뜻인가를 가름하기 어렵다.

(25) a. 그는 그 음식을 전에 먹었었다.
b. 그는 그 음식을 전에 먹은 일이 있다.
c. 그는 그 음식을 전에 먹었지만 지금은 안 먹는다.

위의 예문은 김 남길의 '-었었-'에 대한 설명에서 인용한 것인데[14] (25.a)를 (25.b)와 (25.c)로 분해할 수 있다고 하고, (25.b)는 '主語의 經驗'을, (25.c)는 '對照'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經驗이란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과거 사실에 대

13) 成耆徹(1974), "經驗의 형태 '었'에 대하여" 「문법연구」 제1집 p.263.
14) Kim N-K(1974) "Double Past in Korean" Foundations of Language 12.

한 것이므로 '-었었-'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25.c)가 對照의 意味를 갖는 것은 '먹다'와 '안 먹다'가 같은 문장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26) 철수가 배탈이 났는데 아침에 그 음식을 먹었었다.

문장 (26)은 '먹다'와 '안 먹다'처럼 대조적인 사건이 선택되지 않고 因果關係에 있는 두 사건이 선택되었다는 점을 주시하여야 할 것이다.

Ⅳ. '-었었-'의 形態素 分析

'-었었-'의 意味 規定에서 많은 異見이 있었는데, 이 형태의 形態素 分析 問題에 있어서도 얼마간 異見을 보이고 있다. 이 형태를 單一形態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형태의 連繫 즉 複合形態로 보는 사람이 있다. 대부분 문법 교과서를 통해 '-었었-'의 기능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면서도 形態素 分析 問題는 아무런 언급 없이 간과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複合形態로 보는 見解가 一般的이나 대체적으로 복합된 개개 형태소가 同一形態인지 또는 相異한 形態인지 설명이 부족하며, 複合된 形態라는 根據를 어디에 둔 것이지에도 의문이 따른다.

복합 형태로 보는 學者 가운데 성 기철은 '-었$_1$-'을 過去, '-었$_2$-'를 經驗을 나타내는 形態素로 보았다. 그리고 '-었$_2$-'가 '-었$_1$-'과 다른 형태소라는 증거로서 '-었$_2$-'는 '-았-'으로 나타나는 일이 없고, 또 '-었$_1$-' 뒤에서만 나타나는 分布的 制約이 있음을 들었다.[15] 그러나 '-었$_2$-'가 '-었$_1$-' 뒤에만 연결된다는 분포적 제약은 곧 '-었$_2$-'가 '-았-'으로는 實現되지 않는 것이 '-었$_1$-'과 相補的 分布關係에 있기 때문이라는 反證이 되며 그렇기 때문에 '-었$_2$-'가 '-었$_1$-'의 異形態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히려 증명하는 것이 되고, 따라서 '-었$_2$-'의 獨立性의 根據가 무너지게 된다.

또한 '-었었-'을 '-었$_1$-'과 '-었$_2$-'로 보는 것보다는 이 둘이 同一한 形態로서 複合되어 나타나는 것이라고 주장한 학자들이 있다. 허 웅은 完了의 補助語幹 둘이 복합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16] 박 창해도 完了의 形態가 거

15) 成耆徹(1974), "經驗의 형태 |었|에 대하여" 「문법연구」 제1집.

16) 許雄(1969), 「표준문법」 新丘文化社. p. 83.

듭된 것으로 보고 있다.[17] 그러나 이 때에도 문제가 있다. 즉 '-었-'이 겹쳐서 '-었었-'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면 당연히 '-겠겠-, -더더-, -는는-' 등도 나타나야 할 것이며, 왜 이러한 것은 나타나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또 그것이 설명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文法記述의 一貫性이 없어지고 만다.

이상의 複合形態로 보는 見解에 반하여 單一形態로 보는 입장은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가? 이 희승은 "'대과거'를 표시하기 위하여는 어간에 '었었'이나 '았었'이나 혹은 '었었'을 붙여서 쓴다"[18]고 했으니 이것은 單一形態로 본 듯하고, 강 복수, 유 창균도 大過去라 하여 '어간+았(었)었다'[19]라 했으니 역시 同軌인 것 같다.

'-었었-'을 斷續相으로 보는 남 기심은 '-었었-'을 '-었-'의 겹침이라 본다면 母音調和에 의해 '-었었-','-았었-' 뿐만 아니라 '-았았-'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는 것은 뒤의 '-었-'이 분리될 수 있는 獨立된 形態素가 아닌 것이니, '-었었-'이 單一한 形態素로 그 앞의 母音과의 調和에 의해 '-았었-', '-었었-'으로만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였다.[20]

만약에 '-었었-'을 單一한 形態素로 본다면 '-었-'과 '-었었-' 사이의 共通的인 意味, 곧 이 둘이 과거의 어떤 일에 대한 진술이라는 공통적인 의미를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고 할 수도 있겠다. 또 '-었겠-'과 같은 경우의 '-었-'도 未來 혹은 現在의 어떤 時點보다 앞선 事實을 보이는 것이니 역시 공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分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므로 '-었었-'을 單一한 形態素로 보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다고 提起할지 모른다.

그러나, 앞서 時制의 問題는 단지 어떤 형태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밝혀낸 바, '-었-'이나 '-었었-'도 모두 과거의 어떤 일에 대한 진술을 나타내는 형태소로 限定지을 수 없는 것이다. 다시 언급한다면 "너 내일 죽었다"

17) 朴昌海(1964), 「한국어 구조론 연구」 -형태소론 및 형태소 배합론-.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p. 82.
18) 이희승(1965), 「새 고등 문법」 一潮閣, p. f. 69.
19) 강복수, 유창균(1969), 「문법」 형설출판사, p. 66.
20) 南基心(1972) "現代國語 時制에 關한 問題" 「국어국문학」 55~57 합병호. 국어국문학회

라는 문장에서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 협박 내지는 공갈을 할 경우에 쓰인 '-었-'을 과거를 나타낸다고 하기 어렵다. 또한 現在를 나타낸다고할 수 있는 時間副詞語 '지금'과 결부시켜 보더라도 "지금 도찼했다"라는 말의 쓰임이 가능하듯이 '-었-'과 '-었었-' 모두가 過去의 陳述에만 쓰인다고 주장하는 데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자연히 해소된다. 그리고 '-었겠-'에서 의문시되었던 '-었-'의 機能도 마찬가지다. "내일 와서 보면 꽃들이 많이 시들었겠다"라는 문장에 '-었-'이 쓰였다고 해서 過去狀況을 陳述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原因은 國語文法에서 時制를 인정하는 것 때문인데, 이러한 점만 보더라도 국어 문법에는 시제가 없으며 따라서 '-었었-'을 單一形態素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V. '-었었-'의 機能

종래 國語 時制의 記述은 外國文法의 영향 하에서 이루어진 한 典型이라 할 만하다. 근본적으로는 時制란 自然現象으로서의 時間에 대한 槪念 또는 現象이 言語에 反映된 것이다. 이런 경우 自然時間과 言語時間 사이에는 결코 一致할 수 없는 거리가 상존하는 바, 이것은 言語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分斷 不可能한 自然現象을 분단하므로써만 표현 가능하다는 데서 기인되는 것이다. 따라서 本節에서는 '-었었-'이 過去完了나 大過去가 아니라, 話者가 기타 어느 시간, 어떤 상황과 斷續시키므로써 特定時間에 일어났던 特定狀況만을 强調하기 위한 相의 槪念으로 규정짓고자 한다. 이것은 남 기심의 主張과 類似한 것이겠지만 어떤 結果의 斷續狀態를 넘어서 지난 時間中에 일어났던 叙述語의 狀況을 특히 强調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러한 機能을 動詞와 形容詞로 大別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動詞

먼저 斷續이란 뜻은 어떤 상태(여기서는 어떤 動作이 끝난 結果의 狀態)가 뒤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話者의 判斷에 의한다. 또한 前의 어떤 事件 또는 狀態가 그 後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거나 언급하려는 意圖가 없는 경

우, 또는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와 지금의 상황이 달라졌음을 나타내려는 경우를 모두 내포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27) a. 그는 빨간 모자를 썼다.
b. 그는 빨간 모자를 썼었다.
(28) a. 그는 운동장을 열 바퀴 뛰었다.
b. 그는 운동장을 열 바퀴 뛰었었다.

(27.a)를 지금까지 빨간 모자를 쓴 상태가 나타나는 것으로 하고, (27.b)를 지금은 빨간 모자를 쓰고 있지 않음을 보이는 것이라고만 한다면 '-었었-'이 斷續을 나타내는 機能을 가진다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27.b)를 예전에 그를 만났을 때 빨간 모자를 썼었는데 오늘 역시 빨간 모자를 쓰고 있다고 확대 해석한다면 斷續의 意味가 애매해진다. 예문 (28)의 경우 더욱 그렇다. 운동장 열 바퀴를 뛰는 것이 지금에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 두 문장 모두 斷續의 意味를 내포하기에 '-었-'과 '-었었-'의 기능이 더욱 불분명하다.

여기에 단속의 의미가 단순히 단속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話者의 心理的인 意圖로 한층 强調되고 있음을 파악해야 한다. (27.b)가 빨간 모자를 지금 쓰고 있는 상황에 적용될 수 있다 하여도, 이는 지금까지 모자를 써 온 사실을 서술하려는 데 목적을 두는 문장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을 엄격 구분하여 前後狀況이 어찌됐든 話者가 말하려는 어느 特定時間에 모자를 썼던 事實만을 隔離시키므로써 斷續的인 時間이 되고, 그 時間의 特定狀況만을 强調하는 것이 된다. 즉 화자의 意圖的인 斷續을 통하여 그 때 特定狀況이 있었음을 强調하는 것이다. (28.a)는 열 바퀴 뛴 사실에 대한 설명에 불과한 것이며, (28.b)는 지나간 특정 시간에 열 바퀴 뛴 사실이 있음을 다른 시간 다른 행동과 구분지으려는 話者의 意圖的 表現인 동시에 그 구분(斷續)은 서술하고자 하는 내용을 强調하려는 話者의 心理가 內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過去의 反復·習慣的 行爲에 대한 斷續의 意味는 어떠한가?

(29) a.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갔다.
b.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갔었다.

(30) a. 그는 3년 동안 약을 복용했다.
b. 그는 3년 동안 약을 복용했었다.

위의 例文에서는 과거 반복이나 습관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었-'과 '-었었-'의 기능에서 별다른 차이를 갖고 있지 않다. 또한 比較例文 모두가 어쩌면 過去의 叙述狀態가 現在는 행하여지지 않아 斷續을 나타낸다는 표현이 애매하다. 그러나 a문장에 비하여 b문장들은 '산책을 나갔던 습관', '약을 복용했었던 상황' 이외의 다른 습관 내지는 상황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려 들지 않는 話者의 意圖를 암시하고 있어 現在와의 心理的 狀況으로부터 거리감을 두고 있으며 또한 그 당시의 사건만을 중시하고 있다.

(31) a. 나는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약속만큼은 철저히 지켜왔다.
b. 나는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약속만큼은 철저히 지켜왔었다.

위 예문은 지금까지 행해온 習慣으로 모두 처리되었기 때문에 斷續의 意味가 弱化되었다. (31.a)의 경우 앞으로도 약속 시간만큼은 계속 잘 지키겠다는 결심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31.b)의 경우는 약속을 지켜왔던 行爲가 곧 깨져 버릴 위기에 처해 있음을 암시하여 行爲의 斷續을 表面化하고 있다. b문장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약속 지키는 습관이 깨질 때 깨지더라도 지금까지 약속을 철저히 지켜왔던 사실이 있었음을 强調하려는 話者의 心理가 內在되어 있다는 것이다.

(32) a. 철수가 떠났다고 보고했다.
b. 철수가 떠났다고 보고했었다.
c. 철수가 떠났었다고 보고했었다.

(32)문장들에서도 지나간 시간에 있었던 일을 지금과 심리적 간격을 두므로써 그 때 狀況을 叙述하고 있는 것이다. a에서는 '떠난 상태', '보고한 상황'이 단순히 행해졌음을 서술할 뿐이다. b에서 철수가 어떤 상태를 보고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지금 그 報告가 虛僞로 判明되었든 그렇지 않든 지나간 어느 특정 시간에 보고한 사실만큼은 화자가 의도적으로 밝히려 하고 있다. c문장은 b의 이러한 사실 외에 떠났던 사실까지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2. 形容詞

形容詞는 動詞와는 달리 性質이나 狀態를 나타내기 때문에 完了的 內容의 實現보다는 持續的인 性格을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어떤 基準時點에 대한 形容詞的 表現은 先行되거나 後行되지 않으며 同時的이 됨이 특색이다.

(33) a. 내가 거기에 갔을 때만 해도 하늘은 맑았으나 바람은 찼다.
b. 내가 거기에 갔을 때만 해도 하늘은 맑았으나 바람은 찼었다.
c. 내가 거기에 갔을 때만 해도 하늘은 맑았었으나 바람은 찼다.
d. 내가 거기에 갔을 때만 해도 하늘은 맑았었으나 바람은 찼었다.
e. 내가 거기에 갔었을 때만 해도 하늘은 맑았으나 바람은 찼다.
f. 내가 거기에 갔었을 때만 해도 하늘은 맑았으나 바람은 찼었다.
g. 내가 거기에 갔었을 때만 해도 하늘은 맑았었으나 바람은 찼다.
h. 내가 거기에 갔었을 때만 해도 하늘은 맑았었으나 바람은 찼었다.

위의 문장들에서 時間의 前後를 따진다면 거기에 간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에 하늘은 맑고 바람은 찼다든지, 아니면 그 후에 하늘이 맑거나 바람이 찼다든지, 혹은 가기 전에 하늘은 맑았지만 그 후에 바람이 찼다든지,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라든지 하는 의미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이 문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거기에 갔을 때 바로 同時的 狀況에서 하늘은 맑았다는 것, 바람은 찼다는 사실을 認知시킬 따름이지 시간의 先後關係는 다음 도표와 같이 동일하게 표시된다.

(33′) 내가 거기에 갔을 때 → 하늘은 맑았으나 → 바람은 찼다.
내가 거기에 갔었을 때 → 하늘은 맑았었으나 → 바람은 찼었다.

그러면 形容詞의 경우 '-었었-'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가? 형용사의 경우도 動詞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떤 特定한 狀態나 性質만을 强調하기 위한 斷續相이라 설명할 수 있다.

(34) a. 新婦는 너무도 아름다왔다.
b. 新婦는 너무도 아름다왔었다.
(35) a. 그 해 겨울은 몹시 추웠다.
b. 그 해 겨울은 몹시 추웠었다.

위의 예문들은 지난 일에 대한 回想의 意味를 內包하고 있다. a문장들은 '신부가 아름다왔던 것', '겨울이 추웠던 사실'을 알리는 정도로 그치지만 '-었었-'으로 표현된 b문장들은 사실을 알리는 그 이상의 意味를 지니고 있다. (34. b)는 지금의 신부도 아름답지만 그 때 본 신부의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는 뜻을 내포하여 現在와는 결코 같지 않은 느낌이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35.b)도 마찬가지로 정말 추웠던 겨울이었음을 回想하므로써 여느 때 추운 정도와 비교되지 않는다는 표현을 斷續的으로 처리하면서 强調하고 있다.

(36) a. 나는 어렸을 때 키가 작았다.
b. 나는 어렸을 때 키가 작았었다.
c. 나는 학생 때 키가 작았다.
d. 나는 학생 때 키가 작았었다.
e. 나는 어렸을 때도 키가 작았고, 학생 때도 키가 작았는데 지금도 여전히 작다.
f. 나는 어렸을 때도 키가 작았었고, 학생 때도 키가 작았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작다.

예문 (36)을 총체적으로 본다면 내가 어렸을 때나 학생 때, 그리고 지금까지도 키가 작은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렇다면 키가 죽 작은 상태이기 때문에 '-었었-'의 斷續的 機能은 상실되고 있지 않는가? 그러나 이 경우에도 話者는 지금까지 자신의 키가 작은 상태인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어렸을 때, 학생 때를 구분짓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形態素 '-었-'과 '-었었-'의 구별 사용은 무엇을 意味하는 것인가? (36)의 예문들은 모두 어렸을 적부터 학생 때, 지금에 이르기까지 죽 키가 작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만 話者는 b에서 키가 작았던 어린

시절을, d에서 키가 작았던 학생 시절을 키가 작은 지금과를 時間的으로 또는 其他 環境的으로 사뭇 다른 狀況으로 처리하여 强調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話者의 內的 隔離를 통하여 바로 그 당시 그 상황만을 단속적으로 강조하려는 것이 形容詞에서의 '-었었-'의 쓰임이다.

3. 時間語와의 關係

앞에서도 '-었-'과 '-었었-'을 비교하면서 거기에서 表出되는 機能의 差, 心理的인 差로 나타나는 斷續的인 機能이나 또 다른 면에서 느껴지는 話者의 强調點을 살펴보았다. 덧붙여 우리는 '-었었-'이 가지는 이러한 機能들이 지나간 시간, 보통 過去라 규정되어 온 시간의 상황만을 서술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37) a. 나는 어제 떡을 먹었다.
b. 나는 어제 떡을 먹었었다.
(38) a. 날씨가 지금까지 추웠다.
b. 날씨가 지금까지 추웠었다.
(39) a. 날씨가 지금 추웠다.
b. *날씨가 지금 추웠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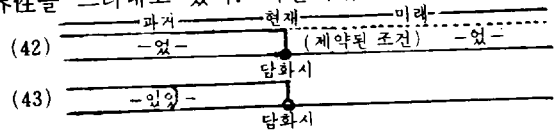
(37), (38)의 네 문장은 表面的으로 거의 類似한 意味를 갖고 있으며 지나간 시간에 '-었-'과 '-었었-'의 쓰임이 문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예문 (38)에서 '지금까지'라는 時間의 領域은 지난 시간에서부터 談話時點 前後의 現在時間, 즉 '지금'이라는 시간 영역을 제외한 것으로 보면 지나간 시간으로 통합시킬 수 있다. 그러나 (39)에서는 '지금'과 같은 談話時 現在를 나타내는 時間語와 '-었-'은 곧잘 어울리고 있지만 '-었었-'은 어울리지 못함을 보여 주고 있다.

(40) a. *내일 친구가 왔다.
b. *내일 친구가 왔었다.
c. 내일 친구가 왔으면 좋겠다.
d. *내일 친구가 왔었으면 좋겠다.

(41) a. 꽃병을 깨뜨렸으니 이제 혼났다.
b. *꽃병을 깨뜨렸으니 이제 혼났었다.

예문 (40)에서는 假定形의 文章 c에서만 미래의 시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 '내일'과 '-었-'이 연결되고 있음을 보이는 반면, '-었었-'은 어떤 형태이든 미래의 시간과는 쉽게 어울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인다. (41)의 경우는 原因과 結果의 句束的인 關係에서 談話時 以後의 일에 대하여 '-었-'은 순조롭게 연결되고 있으나 '-었었-'은 연결이 不可能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특히 여기서 유의할 사항은 어떤 形態의 文章이건 간에 '-었었-'이 未來를 뜻하는 語彙와는 연결되지 못하고 있지마는 '-었-'의 경우도 制限된 範圍內에서 연결이 可能하다는 점이다. 未來狀況에서 '-었-'이 나타날 수 있는 條件에 관해서는 다음 硏究課題로 미루고 本稿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結果的으로 '-었었-'은 談話時點 直前에 그 表示하는 狀態가 斷切됨을 뜻한다. 곧 '-었-'이 現在, 때로는 未來까지도 넘나드는 時相的 意味를 보이는데 반해서 '-었었-'은 엄격한 의미에서 지나간 시간의 幅에서만 쓰일 수 있는 限界性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圖表化하면 다음과 같다.



Ⅵ. 맺 음 말

以上의 論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國語에서의 時制問題가 오늘날에 와서 그 樣相을 달리하고 있음을 볼 때,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 우리가 더욱 硏究해야 할 課題로 남겨진다.

1. 時制의 問題는 文章마다에 갖고 있는 談話時 혹은 主文事件時의 基準時點에 따라 달라지고 있고, 그 외의 言語外的 要素나 意味解釋의 差異에 따라 時稱이 변하고 있음을 보았다. 두 개의 動作이 하나의 文章에서 時間差를 두고 實現되었을 때도 어떤 形態上의 條件에 의해 時制가 決定된다기보다는 그 文章의 意味 또는 內容의 論理性·慣用性으로 파악되어 時間의 前後關係를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文章에 나타나는 事件의 時間的 前後關係에 대해서는 아

직 公式化되지는 못했지만 時制形態素 以外의 要素나 言語外的인 條件에 의한 統辭上의 意味論的인 問題로 다룰 수 밖에 없다.

2. 이러한 문제들을 토대로 하여 '-었었-'의 機能에 대한 여러 學者의 見解를 살펴 보았다. 그들은 '-었었-'의 槪念規定에 있어 어떤 過去를 基準으로 해서 그 이전의 시간을 지칭하는 시제라 하여 大過去, 과거에 움직임이 막 끝나서 그 결과가 지금은 드러나지 않는다는 過去完了, 완료가 더 먼 옛날에 이루어진 完了의 完了, 완료된 상태의 단속을 보이는 斷續相, 主體의 과거 경험을 나타내거나 대조로 보인다는 經驗·對照相 등등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들은 '-었었-'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밖에 파악하지 못한 결과라 할진대, 필자는 機能 補充의 方法으로 '完了된 狀態의 斷續을 보이므로써 特定한 때의 狀況을 强調 叙述한 것'이라 규정하였다.

3. '-었었-'의 形態素 分析 結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複合形態는 時制를 인정한 입장에서 분석한 것이므로 많은 問題點들을 內包하고 있었다. 그러나 時制로서보다 相(aspect)에 입각한 '-었었-'의 기능은 複合形態로 분석하는 것보다 單一形態로 보아야 하는 주장을 타당하게 만들었다.

4. 어떤 動作이 끝난 結果의 狀態가 뒤로 이어지지 않는 뜻으로 斷續相은 客觀的 事實에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면에 숨겨져 있는 話者의 意圖的 隔離狀態를 통하여 그 당시의 叙述狀況을 强調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는 動詞와 形容詞에 모두 구별없이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 특히 유의할 사항은 '-었었-'이 내포하는 意味들이 지나간 상황만을 서술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었었-'은 談話時點 直前에 표시하는 상태가 斷切됨을 뜻하는 것으로 그 사용 범위가 극히 制限된 領域에 규정됨이 특이하다.

5. 이제 西洋文法에서 거의 자동적으로 받아들여져서 그대로 정착되었던 國語時制 問題를 발견하면서 韓國語의 특질에 맞는 時制範疇, 相의 範疇 設定의 必要性과 아울러 이들의 기초적인 槪念定立의 必要性을 再認識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자각에서 비롯할 때, 國語時制나 相의 體系에 올바른 接近을 試圖하리라 본다.

參 考 文 獻

강복수, 유창균(1969), 「문법」 형설출판사
김민수(1972), 「國語文法論」, 一潮閣
김석득(1974), "한국어의 시간과 시상", 「한불연구」 제1집. 연세대학교 불문화 연구소
김윤경(1957), 「고등 나라 말본」, 동아출판사
김형규(1982), 「國語學槪論」, 一潮閣
남기심(1978), 「國語文法의 時制問題에 關한 硏究」, 塔出版社
박창해(1964), 「한국어 구조론 연구」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서정수(1976), "國語時相形態의 意味分析硏究", 「문법연구」 제3집 문법연구회
이기용(1980), "몬테규 문법에 입각한 한국어 시제의 분석", 「언어」 제5권 제1호, 한국언어학회
이숭녕(1961), 「문법」, 乙酉文化社
이익섭(1970), 「새 국어 문법」, 서울대학교 재일교포 예비교육과정부
이희승(1965), 「새 고등 문법」 一潮閣
장석진(1973), "時相의 樣相 : 斷續·完了의 生成的考察", 「語學硏究」 제9권 제2호,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주시경(1910), 「國語文法」, 博文書館
최현배(1955), 「우리말본」 正音社
허 웅(1969), 「표준 문법」 新丘文化社
Kim Nam-Kil(1974), Double Past in Korean, Foundation of Language 12